

배 포 일	2023. 03. 07. 09:00	매 수	총 4매 (사진 1매 별도)
담당부서	일자리사업본부 / 사업개발부	담당자	부장 성연민(02-3415-6930)
			선임 이재웅(02-3415-6937)

“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 참여를 통해 채무면책과 임대주택, 그리고 공공일자리까지”

- 거리노숙인 자활사업 참여자 인터뷰를 통한 자활성공 사례 공유

- 채무가 있어 통장도 압류돼 통장 사용이나 구직도 쉽지 않았던 거리노숙인 김중기(가명) 씨. 노숙생활을 청산하고자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대전광역시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‘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’에 참여한 김 씨는 신용회복 프로그램 교육을 듣고 22년 5월 파산 면책 신청을 한 지 9개월 만에 마침내 개인 파산과 채무면책이라는 결과를 받았다.

“개인파산과 더불어 채무면책도 됐어요.”

- “저의 경우 나이도 많지 않아서 개인파산은 돼도 채무면책은 안 될 수도 있다고 했는데 다행히 채무면책까지 됐더라고요”
- 실제 통계에 따르면 16~19년도 대전지방법원의 면책 인용률은 69%로 개인파산 선고자 중 3분의 1 가량은 면책까지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. 김 씨는 통장을 새로 만들어 근로 급여를 직접 받을 수 있게 되어 기쁘다는 마음을 전했다.

“공공임대를 통해 전세 임대를 신청했는데 이것도 선정이 됐어요.”

○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에 참여하면서 주거지원을 받아 여관에서 생활한 김 씨는 비정형 거주시설에 3개월 이상 거주하면 신청할 수 있는 ‘주거취약계층 매입임대주택’을 대전노숙인종합지원센터 정착지원팀의 도움을 받아 신청하였고, 올해 2월, 매입임대주택 대상자로 선정되어 현재 전세 임대로 입주할 집을 찾고 있다.

○ 채무와 주거가 해결된 김 씨는 근로까지 한 번에 해결되었다고 전했다.

“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사업 안내를 받고, 구청에서 하는 공공근로를 하게 되었어요.”

2월부터 공공근로에 참여한다는 김 씨. 이를 통해 받은 급여를 저축하고, 대전노숙인종합지원센터 지원을 통해 취득한 자격증(지게차, 요양보호사, 대형운전면허)을 이용하여 일자리를 구하고 싶다고 전했다.

□ 한국자활복지개발원(원장 정해식, 이하 개발원)이 주관하는 ‘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’의 실행기관인 대전광역시노숙인종합지원센터(센터장 김의곤, 이하 지원센터)가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에 참여한 거리노숙인의 자활성공 스토리와 사업참여 종료 이후의 삶을 재조명한 사례를 공개했다.

□ 김 씨 사례의 경우 지원센터의 꾸준한 사업 참여자 사후관리를 통한 개인파산과 채무면책, 공공임대주택 입주, 공공근로 참여 등 거리노숙인 특화자활사업의 대표적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다.

○ “거리 노숙인 특화 자활사업이 참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. 일을 못 할 때 일 시켜주고, 신용회복을 신청할 여유도 만들어주고,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게 도와주고, 다양하게 도와주셨잖아요. 이

사업이 시범사업이라고 들었는데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오래오래 지속되어 어려운 상황에 있는 많은 사람이 꼭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”라고 소감을 전했다.

- 정해식 개발원 원장은 “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의 우수한 성과 창출을 지속하고, 사후관리를 통해 탈노숙 성과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”고 밝혔다.

<붙임 1> 관련사진 1매



(사진설명: '23.02.28.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 참여자 사후관리 인터뷰,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제공)